

듀켄바이오

(176750)

Not Rated

	현재	직전	변동
투자 의견	Not Rated		신규
적정주가			
Earn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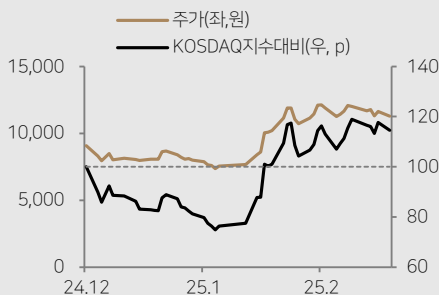
Stock Information

현재가 (3/11)	11,010원
예상 증가상승률	n/a
시가총액	3,133억원
비중(KOSDAQ내)	0.09%
발행주식수	28,455천주
52주 최저가 / 최고가	3,715 - 12,140원
3개월 일평균거래대금	74억원
외국인 지분율	0.2%
주요주주지분율(%)	
지오영 (외 10인)	61.2
자사주 (외 1인)	0.4
듀켄바이오우리사주 (외 1인)	0.1

Valuation wide	2021	2022	2023
PER(배)	135.6	n/a	37.2
PBR(배)	409.7	n/a	33.7
EV/EBITDA(배)	70.3	17.9	15.3
배당수익률(%)	0.0	0.0	0.0

Performance	1M	6M	12M	YTD
증가상승률(%)	(7.5)	44.5	188.0	35.1
KOSDAQ 대비 상대수익률(%)	(3.7)	42.7	205.6	28.7

Price Trend



DAOL 다음투자증권

방사성 진단부터 CDMO까지

Issue

국내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제조/판매 전문기업. 업황 점검

Pitch

국내 알츠하이머병 PET-CT 진단 시장 M/S 1위. 레켄비 및 키순라 처방확대와 함께 매출 성장 예상. 국내 최초 방사성 진단제 CDMO 플랫폼 구축. 국내 방사성의약품 기업 중 유일하게 이익 발생하는 기업

Rationale

- 국내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주로 해외 기술을 도입해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자체 연구 개발(R&D)도 진행 중
- 국내 알츠하이머병 진단용 조영제 시장 선두 기업. 2024년 말 레켄비 출시 이후 PET 진단제 수요 증가 추세. 치료제 처방 확대에 따라 PET 진단제 처방도 동반 상승할 전망. 현재 연간 9만 도즈 생산 가능. 향후 수요 증가에 대비해 2027~28년까지 생산 설비 증설해 연간 12만 도즈까지 확대 할 계획
- 2024년 매출액 356억원(+7.0% YoY), 영업이익 50억원 (OPM 14%) 기록. 2025년 매출액 600억원 달성 기대
- 아시아 지역 CDMO 사업 확대 예정. 글로벌 바이오텍과 세 부 협업 모델에 대한 논의 진행 중

Earnings Forecasts

(단위: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16.0	15.6	10.4	32.4	34.7
영업이익	(4.1)	(2.8)	0.6	1.6	5.3
EBITDA	(0.4)	0.3	3.5	8.9	11.0
순이익	(15.1)	(7.2)	1.6	(2.8)	4.0
순차입금	20.1	21.3	30.8	24.5	19.8
매출증가율	53.4	(2.2)	(33.3)	211.1	7.0
영업이익률	(25.4)	(17.8)	5.8	4.8	15.1
순이익률	(94.6)	(45.8)	15.4	(8.7)	11.5
EPS증가율	적지	적지	흑전	적전	흑전
ROE	234.4	130.3	n/a	(16.6)	20.3

Note: K-IFRS 별도 기준 /

DAOL Investment & Securities | 93

Source: 다음투자증권

듀켄바이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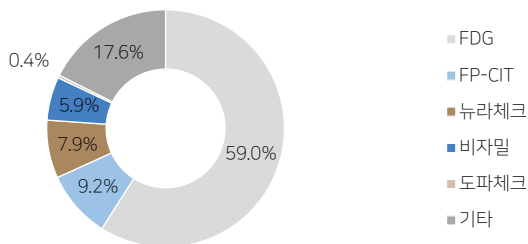
듀켄바이오는 2002년 설립, 2014년 코넥스 상장 후 2024년 코스닥에 이전 상장한 방사성 의약품 개발사이다.

건기식 유통사 메디보스로 설립된 후 2009년부터 강원대, 한양대 등 다양한 방사성 의약품 제조소를 인수, 신설하면서 현재 GMP 제조소 6곳을 포함해 총 12개의 제조소를 보유하고 있다. 케어캠프 방사성 의약품 사업부문 합병(2021), 라디오디앤에스랩스 인수(2024)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알츠하이머 진단(비자밀, 뉴라체크), 파킨슨 진단(FP-CIT), 암진단(FDG) 방사성 의약품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방사성 의약품 생산 설비 증설을 계획 중이며 이를 통해 아태지역 방사성 의약품 CDMO를 목표로 하고 있다.

3월 11일 기준 시가총액은 3,133억원이고 KOSDAQ 제약업종에 속해 있다.

사업부문 Breakdo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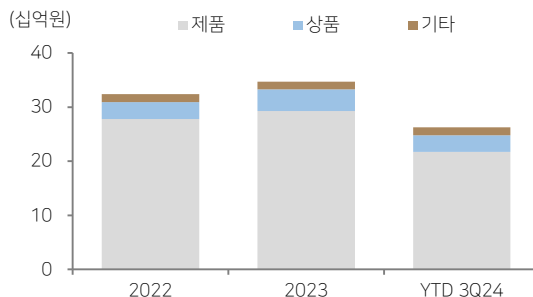
- 24년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약 262억원으로 FDG 59%, FP-CIT 9%, 뉴라체크 8%, 비자밀 6%, 도파체크 0.4%, 기타 18%로 구성
- 유형별로는 제품 83%, 상품 12%, 기타 6%로 구성



Source: 듀켄바이오, 다올투자증권

Financials

- 24년 연결매출 356억원(YoY+7.0%), 영업이익 50억원(YoY-5.7%, OPM 14%) 기록
- 23년 별도매출 347억원(YoY+2.6%), 영업이익 53억원(YoY+238%, OPM 15%) 기록
- 파킨슨 진단용 FP-CIT, 알츠하이머 진단용 뉴라체크, 비자밀주사액 기반 높은 국내 방사성 의약품 시장 점유율 확보, 매출 발생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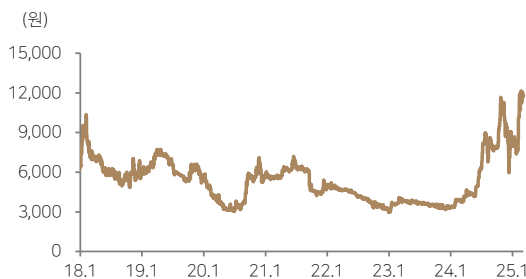
Source: 듀켄바이오, 다올투자증권

Note1: 2021.08 케어캠프 방사성 의약품 사업법인 결합에 따라 2021년 실적은 4Q만 반영, 2022년 이후부터 별도기준 실적

Note2: 4Q24부터 연결 기준으로 변경

주가

- 24년 하반기 이후 도나네맙 승인 등 알츠하이머 진단 관련 수혜, 코스닥 이전상장,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후 다수의 방사성 의약품 딜 발생 등 방사성 의약품에 대한 시장 관심 증가로 주가 상승세



Source: Quantwise, 다올투자증권

I. 국내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선두 주자

I-1. 암부터 뇌질환까지 진단제 매출 확보 중

국내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전문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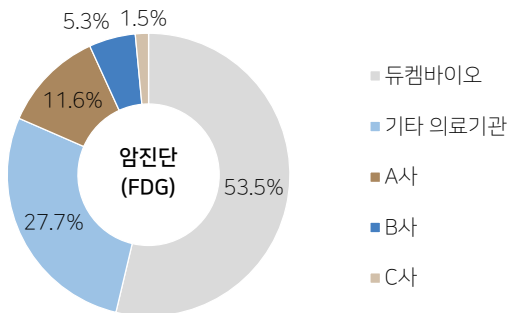
듀켄바이오는 국내에서 방사성의약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전문 기업으로, 해외 기술 도입과 자체 연구개발(R&D)을 병행하며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방사성의약품 기반의 진단용 조영제 시장에서 국내 선두 기업으로 자리 잡았으며,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력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각지에 GMP 인증 생산시설 운영. 암과 파킨슨병 진단 시장 50% 이상 확보

현재 전국적으로 12개의 제조 시설을 운영 중이며, 이 중 6개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인증을 받은 시설이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은 반감기가 짧아 신속한 공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병원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듀켄바이오는 전국 각지에 GMP 인증 생산시설을 운영하며, 주요 병원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내 암 및 파킨슨병 진단 시장에서 5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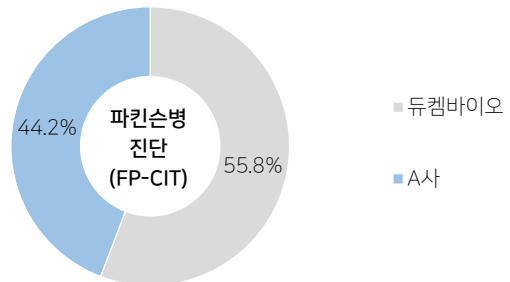
현재 판매 중인 암 진단제는 포도당 대사 원리를 이용해 모든 유형의 종양을 탐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F-18 FDG(플루오린-18 FDG)가 있으며, 이 진단제는 정상 세포보다 높은 대사를 보이는 종양 세포를 표적화하여 PET-CT 영상에서 암을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파킨슨병 진단제 FP-CIT는 도파민 운반체 밀도를 측정하여 파킨슨병 및 파킨슨 증후군을 진단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Fig. 99: 국내 암 진단 조영제 시장 점유율



Source: 듀켄바이오, 다올투자증권
Note: 생산 기준

Fig. 100: 국내 파킨슨병 진단 조영제 시장 점유율



Source: 듀켄바이오, 다올투자증권
Note: 생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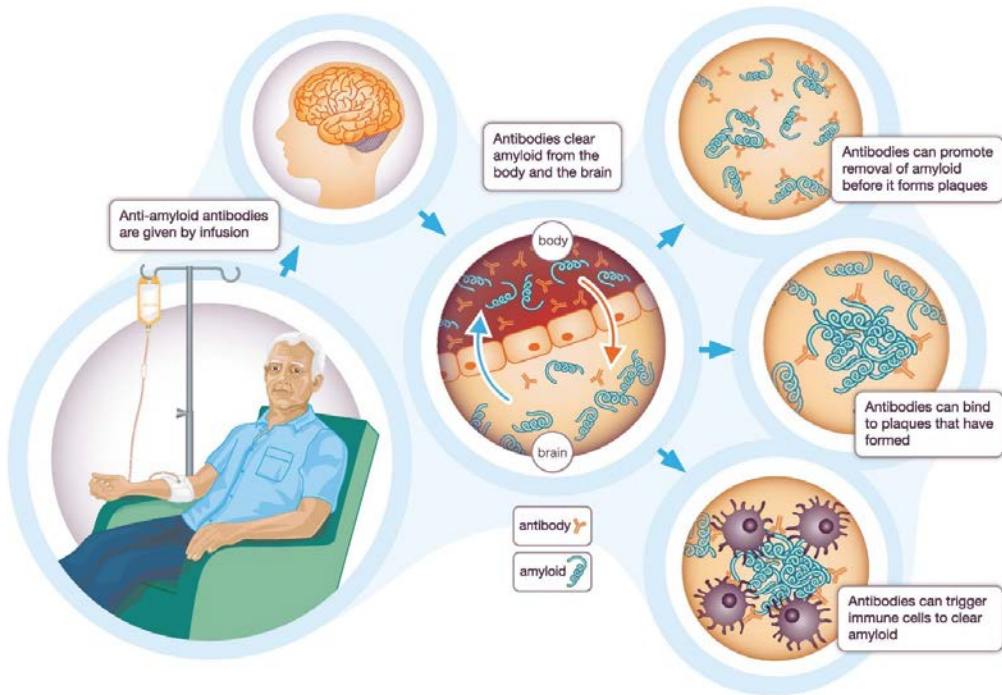
1-2.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처방 확대에 따른 동반 상승 기대

전세계 알츠하이머병 환자 증가 중. 아밀로이드 베타 항체 치료제 개발 확대

전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DI(Alzheimer’s Disease International;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 세계 치매 환자는 5,500만 명을 넘었으며, 2030년에는 7,800만 명, 2050년에는 1억 4,0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알츠하이머병 연구 및 치료제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 베타(Aβ) 플라크 축적과 타우(Tau) 단백질의 엉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 질환이다. 이를 표적으로 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항체 치료제는 주로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상용화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바이오젠의 레캬비(레카네맵; Lecanemab)와 일라이 릴리의 키순라(도나네맵; Donanemab)가 FDA 승인 받아 판매되고 있다. 이 외에도 로슈의 트론티네맵(Trontinemab), 일라이 릴리의 렘터네툽(Remternetug) 등 다양한 아밀로이드 베타 타겟 항체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Fig. 101: 아밀로이드 베타 타겟 항체 치료제의 치료 방식



Source: Alzheimer’s Research UK, 다음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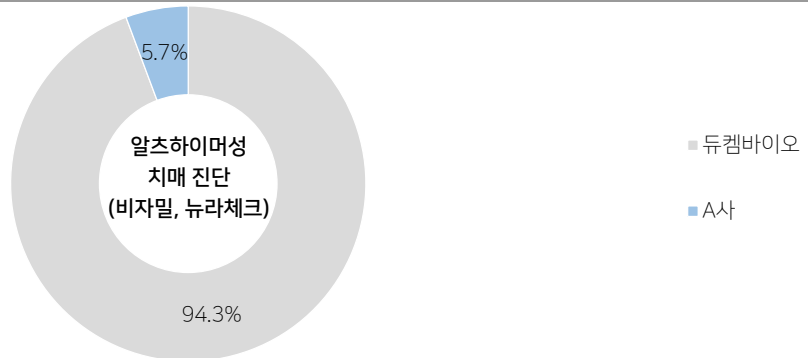
알츠하이머병 진단에 사용되는 뉴라체크와 비자밀의 제조 담당

알츠하이머병 진단은 뇌의 아밀로이드 베타(Aβ) 분포 및 밀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뉴라체크(Neuraceq)와 비자밀(VIZAMYL)과 같은 PET 조영제가 사용되고 있다. 듀켄바이오는 독일 Life Molecular Imaging(LMI)과 미국 GE Healthcare로부터 해당 진단제의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이 중 뉴라체크는 카이바이오텍이 판매를 맡고 있으며, 듀켄바이오는 제조/공급,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뉴라체크와 비자밀의 차별점을 바탕으로 국내 알츠하이머병 진단 조영제 시장 1위 기록

뉴라체크와 비자밀은 모두 F-18(플루오린-18) 기반의 PET 조영제로 PET(양전자 방출 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해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를 검출하는데 사용된다. 뉴라체크는 뇌 피질(Cortical) 영역에서 신호 지속 시간이 길어 영상 획득에 용이하며, 높은 신호 강도를 제공해 우수한 해상도를 갖춘 것이 강점이다. 반면 비자밀은 3D 영상 해석이 용이하고, 뇌 피질뿐만 아니라 피질하(Subcortical) 영역까지 선명하게 관찰할 수 있어 초기 알츠하이머병 진단에 유리하다. 또한 아밀로이드 플라크 검출 민감도가 높아 조기 진단의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점을 바탕으로 듀켄바이오는 국내 알츠하이머병 진단 조영제 시장 1위를 기록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Fig. 102: 국내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 조영제 시장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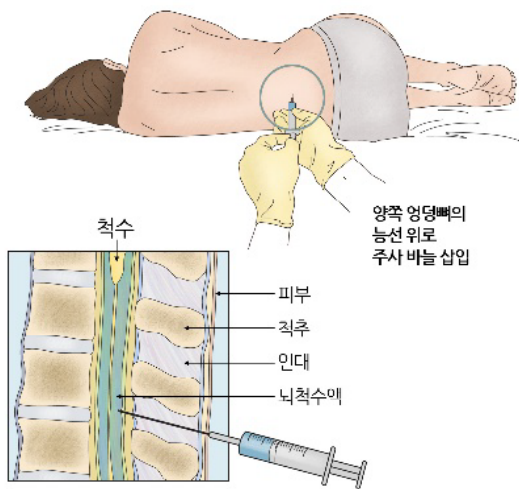
Source: 듀켄바이오, 다올투자증권

레캠비와 키순라는
처방 전 PET-CT나
CSF 검사 필수

FDA 승인 받은 아밀로이드 베타 항체 치료제 레캠비(Leqembi)와 키순라(Kisunla)는 PET-CT 또는 뇌척수액(CSF) 검사를 통해 아밀로이드 베타 침착이 확인된 환자에게만 처방 가능하다. 뇌척수액 검사는 요추 부위에 바늘을 삽입해 뇌척수액을 채취하는 침습적인 방식으로 환자 거부감이 높은 반면, PET-CT 검사는 비침습적 방식으로 실시간 영상 진단이 가능하여 환자들에게 선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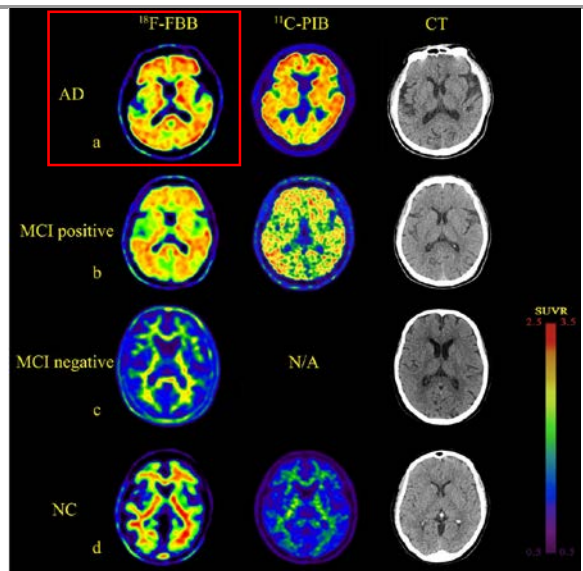
실제로 미국에서는 레캠비(Leqembi) 출시 이후 PET-CT 촬영 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밀로이드 베타 항체 치료제 도입과 함께 PET-CT 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Fig. 103: 뇌척수액 검사 방식



Source: 아산병원, 다올투자증권

Fig. 104: F18 기반 PET-CT 진단 방식



Source: 18F-Florbetaben Amyloid PET Imaging: A Chinese Study in Cognitive Normal Controls,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Alzheimer's Disease Patients,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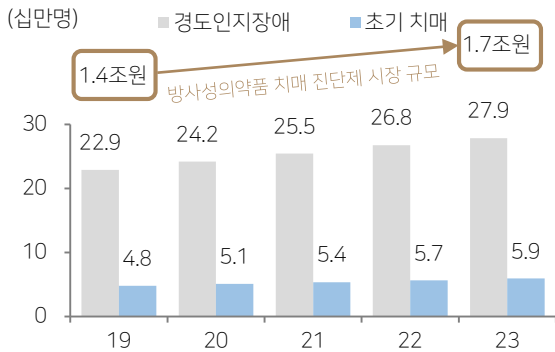
Note: AD: 알츠하이머병, MCI positive: 아밀로이드 베타 침착이 관찰된 경도인지장애 환자, MCI negative: 아밀로이드 베타 침착이 없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NC: 정상 대조군

치료제 처방 증가와 함께 PET-CT 진단제 수요 확대. 2025년 매출액 600억원 목표

국내 치매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치료제 및 진단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내 경도 인지장애(MCI) 환자는 약 278만명, 초기 치매(최경도, 경도) 환자는 약 59만명에 달했다. 2024년 11월 레캠비 국내 출시 이후 PET 진단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치료제 처방에 따라 PET 진단제의 활용 빈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알츠하이머 진단제는 환자 1인당 1~3회 정도 처방되고 있으며 치료제 사용 증가와 함께 진단제 처방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듀켄바이오는 올해 약 6만도즈 이상으로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공급가액 40만원 초반대를 기준으로 2025년 매출액 250억원이 추가적으로 발생해 전체 매출액 600억원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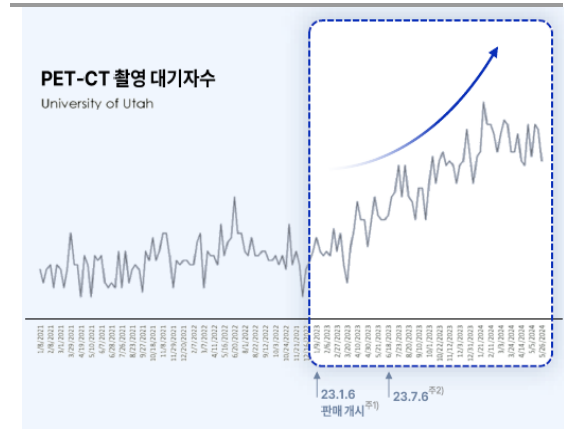
현재 듀켄바이오는 연간 최대 9만 도즈의 치매 진단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2027년~2028년까지 추가 증설을 통해 연간 12만 도즈까지 생산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치매 치료제 시장의 성장에 맞춰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시장 점유율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Fig. 105: 레캠비 적응증 국내 대상 환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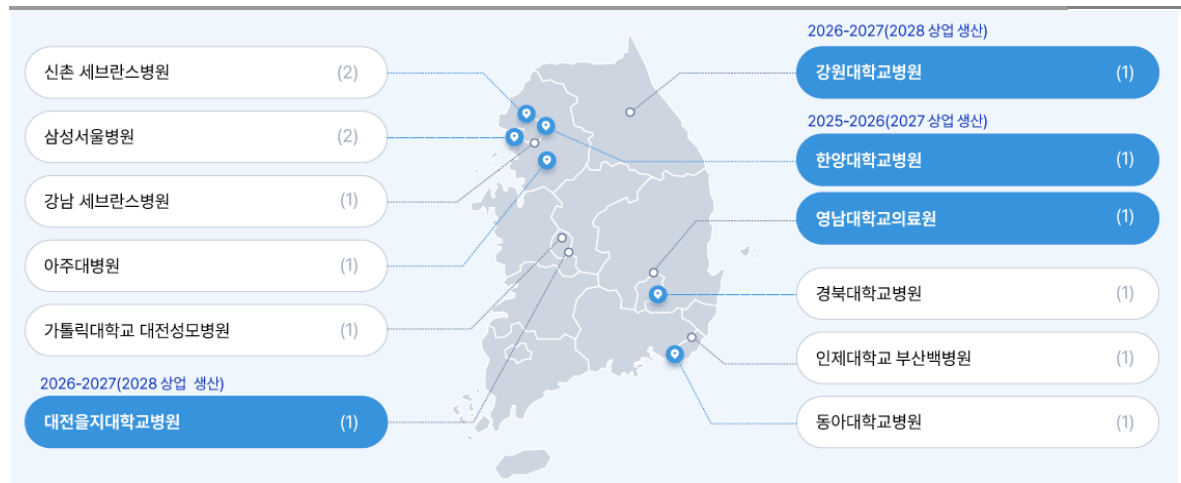
Source: 듀켄바이오, 다올투자증권

Fig. 106: 미국 유타 대학의 PET-CT 촬영 대기자 수



Source: 듀켄바이오, 다올투자증권

Fig. 107: 국내 치매 진단제 제조 시설 및 증설 계획



Source: 듀켄바이오,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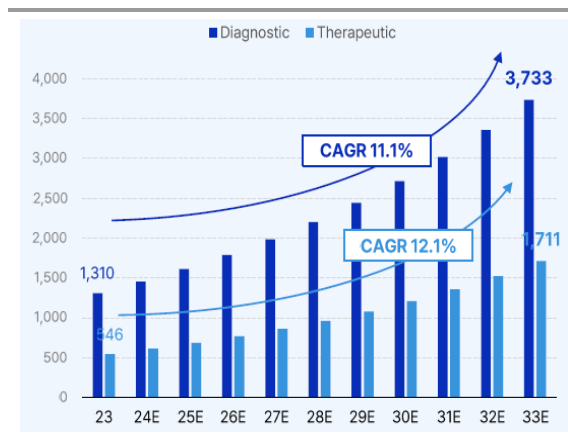
II. 아시아 지역 CDMO 사업 확대 준비 중

아시아 지역 CDMO 사업 확대 추진 중. 2025년~26년 증설 계획

듀켄바이오는 아시아 지역에서 방사성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북미 및 유럽에서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 제조 인프라를 선점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방사성 치료제 제조 시설과 인프라 투자가 아직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듀켄바이오는 아시아 시장 내 방사성 치료제 생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방사성 동위원소 제조 기술 확보, 치료제 생산 설비 구축, 글로벌 바이오텍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5~2026년까지 영남대 의료원에 신규 방사성 동위원소 설비를 증설하고, 국내 대형 병원 내 치료제 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치료제 생산 역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들과 세부 협업 모델을 논의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아시아 시장에서의 CDMO 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특히, 방사성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CDMO를 구축하고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텍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아시아 시장에서 방사성 치료제 생산 및 공급 허브로 자리잡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ig. 108: 아시아태평양 방사성의약품 유형별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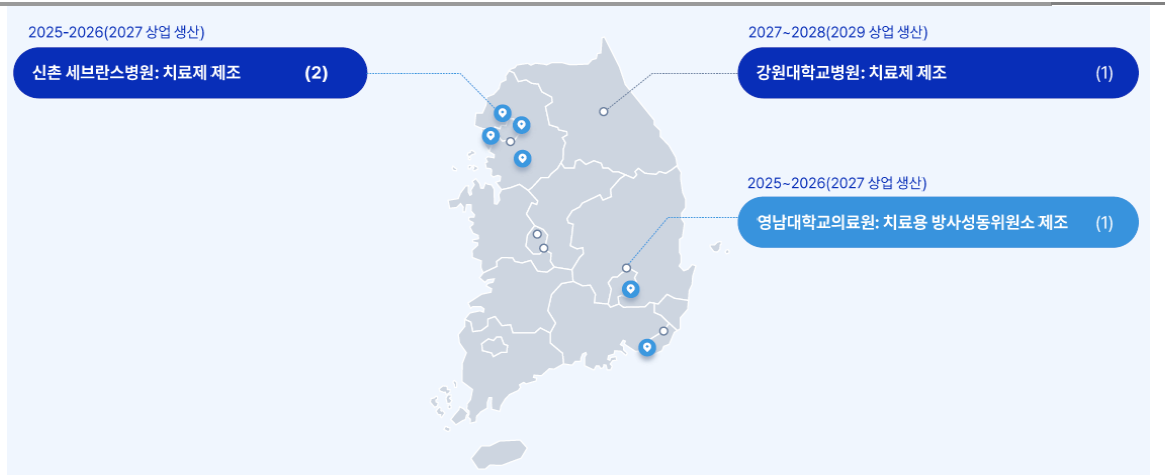
Source: 2024 Allied market research, 듀켄바이오, 다올투자증권

Fig. 109: 아시아 시장 허브를 목표



Source: 듀켄바이오, 다올투자증권

Fig. 110: 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및 치료제 제조 시설 증설 계획



Source: 듀켄바이오, 다올투자증권

Fig. 111: 듀켄바이오의 파이프라인 현황

	파이프라인	분류	적응증	개발단계 및 비교
자체 R&D	GP-1	진단용	혈관질환 진단	- 국내 전임상
	AI 처리기술		핵의학 영상	- 국내 임상 2 상
	DCB002	치료용	고형암	- 전임상 준비 중
	DCB003		고형암	- 전임상 준비 중
기술도입 품목	18F-rhPSMA7.3	진단용	전립선암 진단	- 영국 Blue Earth Diagnostics로부터 L/I(2023.12) - 국내 허가 신청 완료(2024.10)
	68Ga-PSMA-11		전립선암 진단	- 호주 Telix로부터 L/I(2020.12) - 국내 품목허가 신청 준비 중
	18F-FES		유방암 진단	- 아산병원으로부터 L/I(2022.12) - 국내 상업화 준비 중으로 품목허가 신청 계획(2H25) - 일본, 싱가포르 L/O 논의 중
	DCB001-177Lu-DOTA	치료용	전립선 암 진단	- 글로벌 임상 3 상 진행 중-국내 가교 임상 시험 준비 중
	18F-MK-6240	CDMO	치매 진단	- 글로벌 임상 3 상 준비중-CDMO를 통한 임상시험 의약품 공급 중
	18F-PI-2620		치매, 진행성 핵상마비 진단	- 글로벌 임상 3 상 신청 준비 중-기술이전 완료

Source: 듀켄바이오, 다올투자증권

듀켄바이오 재무제표 (K-IFRS 별도)

대차대조표

(단위: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유동자산	4.2	4.5	9.8	12.3	12.7
현금성자산	0.7	1.0	1.0	2.6	2.0
매출채권	2.9	2.8	7.5	8.9	9.1
재고자산	0.4	0.6	1.2	0.8	1.3
비유동자산	18.8	13.2	44.4	39.0	36.6
투자자산	5.2	3.9	11.9	9.4	9.6
유형자산	13.6	9.3	16.5	11.5	9.6
무형자산	0.0	0.0	16.0	18.1	17.4
자산총계	23.0	17.7	54.2	51.4	49.3
유동부채	19.6	22.1	28.5	24.2	19.4
매입채무	2.5	2.8	3.7	4.6	4.3
유동성이자부채	17.0	19.4	24.4	19.1	14.7
비유동부채	5.4	4.5	9.2	9.6	8.1
비유동이자부채	3.8	2.9	7.4	8.0	7.0
부채총계	25.0	26.7	37.7	33.8	27.5
자본금	4.8	4.8	13.9	13.9	13.9
자본잉여금	49.6	49.6	3.0	6.6	7.4
이익잉여금	(57.5)	(64.5)	1.6	(1.0)	3.0
자본조정	1.0	1.1	(2.0)	(1.9)	(2.5)
자기주식	0.0	0.0	(2.9)	(2.9)	(2.9)
자본총계	(2.0)	(9.0)	16.5	17.6	21.8
투자자본	17.9	12.2	45.3	40.0	39.4
순차입금	20.1	21.3	30.8	24.5	19.8
ROA	(64.4)	(35.2)	4.5	(5.4)	8.0
ROE	234.4	130.3	na	(16.6)	20.3
ROIC	(16.4)	(13.4)	1.5	2.6	13.1

손익계산서

(단위: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16.0	15.6	10.4	32.4	34.7
증가율 (Y-Y,%)	53.4	(2.2)	(33.3)	211.1	7.0
영업이익	(4.1)	(2.8)	0.6	1.6	5.3
증가율 (Y-Y,%)	적전	적지	흑전	156.9	238.0
EBITDA	(0.4)	0.3	3.5	8.9	11.0
영업외손익	(11.1)	(4.4)	1.0	(4.3)	(1.2)
손이자수익	(1.1)	(1.3)	(0.6)	(1.4)	(1.3)
외화관련손익	(0.0)	0.0	(0.0)	(0.0)	(0.0)
지분법손익	(0.5)	(0.3)	0.0	(0.0)	(0.1)
세전계속사업손익	(15.1)	(7.2)	1.6	(2.7)	4.1
당기순이익	(15.1)	(7.2)	1.6	(2.8)	4.0
증가율 (Y-Y,%)	적전	적지	흑전	적전	흑전
NOPLAT	(2.9)	(2.0)	0.4	1.1	5.2
(+) Dep	3.6	3.1	2.9	7.3	5.8
(-) 운전자본투자	0.1	(0.1)	4.0	(0.0)	1.4
(-) Capex	0.6	0.4	0.0	0.7	1.1
OpFCF	(0.1)	0.7	(0.7)	7.7	8.4
3 Yr CAGR & Margins					
매출액증가율(3Yr)	6.5	5.4	(15.4)	26.6	30.4
영업이익증가율(3Yr)	n/a	n/a	n/a	n/a	n/a
EBITDA증가율(3Yr)	n/a	(36.4)	52.0	n/a	240.4
순이익증가율(3Yr)	n/a	n/a	n/a	n/a	n/a
매출총이익률(%)	9.8	14.7	27.9	26.8	34.0
영업이익률(%)	(25.4)	(17.8)	5.8	4.8	15.1
EBITDA마진(%)	(2.7)	1.8	34.0	27.3	31.8
순이익률(%)	(94.6)	(45.8)	15.4	(8.7)	11.5

현금흐름표

(단위: 십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영업현금	(0.3)	(0.2)	1.1	8.2	8.4
당기순이익	(15.1)	(7.2)	1.6	(2.8)	4.0
자산상각비	3.6	3.1	2.9	7.3	5.8
운전자본증감	0.3	0.1	(2.2)	(0.7)	(2.3)
매출채권감소(증가)	(0.2)	0.3	(1.4)	(1.1)	(0.1)
재고자산감소(증가)	0.3	(0.0)	0.1	0.2	(0.5)
매입채무증가(감소)	0.2	0.2	(0.2)	(0.2)	0.4
투자현금	(2.3)	(1.4)	0.4	(0.3)	(1.3)
단기투자자산감소	0.1	0.0	0.0	0.0	0.0
장기투자증권감소	(0.2)	(0.2)	0.0	0.0	0.0
설비투자	(0.6)	(0.4)	0.0	(0.7)	(1.1)
유무형자산감소	0.0	0.1	0.0	0.0	(0.1)
재무현금	1.5	1.5	(0.5)	(6.5)	(7.8)
차입금증가	(3.8)	1.5	2.4	(6.0)	(7.8)
자본증가	5.4	0.0	(2.9)	0.0	0.0
배당금지급	0.0	0.0	0.0	0.0	0.0
현금 증감	(1.0)	0.0	1.0	1.4	(0.6)
총현금흐름 (Gross CF)	0.2	0.6	3.6	9.8	11.7
(-) 운전자본증가(감소)	0.1	(0.1)	4.0	(0.0)	1.4
(-) 설비투자	0.6	0.4	0.0	0.7	1.1
(+) 자산매각	0.0	0.1	0.0	0.0	(0.1)
Free Cash Flow	(1.7)	(0.7)	1.9	8.8	8.1
(-) 기타투자	0.2	0.2	0.0	(0.0)	0.0
잉여현금	(1.9)	(0.9)	1.9	8.9	8.1

자료: 다올투자증권

주요투자지표

(단위: 원, 배)	2019	2020	2021	2022	2023
Per share Data					
EPS	(1,707)	(809)	60	(96)	148
BPS	(229)	(1,012)	20	(18)	163
DPS	0	0	0	0	0
Multiples(x,%)					
PER	n/a	n/a	135.6	n/a	37.2
PBR	n/a	n/a	409.7	n/a	33.7
EV/ EBITDA	n/a	373.9	70.3	17.9	15.3
배당수익률	0.0	0.0	0.0	0.0	0.0
PCR	443.9	145.7	60.1	13.7	12.7
PSR	5.3	5.3	20.9	4.1	4.3
재무건전성 (%)					
부채비율	(1,235.1)	(297.2)	228.5	191.9	126.1
Net debt/Equity	n/a	n/a	186.4	139.3	90.7
Net debt/EBITDA	n/a	7,611.6	869.4	276.9	179.5
유동비율	21.2	20.3	34.5	51.0	65.4
이자보상배율	n/a	n/a	1.0	1.1	4.1
이자비용/매출액	8.0	8.8	6.1	4.7	3.9
자산구조					
투자자본(%)	75.2	71.4	77.9	76.9	77.3
현금+투자자산(%)	24.8	28.6	22.1	23.1	22.7
자본구조					
차입금(%)	110.8	167.3	65.8	60.6	50.0
자기자본(%)	(10.8)	(67.3)	34.2	39.4	50.0